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ODDS OF LOVING GROVER CLEVELAND

가제 : 그로버 클리브랜드를 사랑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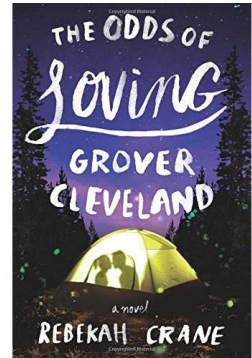
저자 : Rebekah Crane

출판사: Skyscape.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름 캠프에 보내진 열여섯 살 소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위기의 십대들

온갖 재난에 빠졌거나, 병원에서 다양한 진단을 받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캠프 파두아’에 모였다. 열여섯 살 잔더 오스본 역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명의 위태로운 십대 아이들 중 하나지만, 잔더 자신은 애초부터 이 캠프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 엄마아빠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잔더는 정체를 알 수 없는 5주간의 여름 캠프를 시작한, 애리조나에 있는 집과 멀리 떨어진 미시건 주 낯선 자연 속에서 와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평범하지 않은 또래 친구들은 잔더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된다. 잔더는 왜 이 ‘비정상적인’ 캠프에 보내졌을까? 그 자신도 잘 모르는 잔더의 특별한 문제는 캠프에 온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묻혀 있던 비극이 하나 둘 깨어나면서 함께 드러난다. 그들만의 특별한 우정, 그로버라는 소년을 향해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은 잔더에게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다.

잔더가 캠프 파두아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건 몇 달 전 저녁식탁에서였다. 엄마아빠 중 누구도 잔더의 생각은 궁금해하지 않았다. 등록했으니 가야 하고, 다녀오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거라는 설득인지 설명인지 모를 이야기만 이어질 뿐이었다. 엄마는 무더운 애리조나에서 여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언급하며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미 잔더의 귀에 그런 말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일이기에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아빠와 함께 킴벌 호숫가에 있는 캠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캠프장 입구를 막아선 높은 철책이나, 자신에게 이 캠프에 온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캠프장 여기저기를 소개해주던 교사도 대뜸 잔더에게 무슨 문제로 여기 왔냐고 묻고, 배정된 방 안에 멍하니 있을 때 속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요상한 차림으로 벌컥 들어온 룸메이트 캐시도 그것부터 물어보았다. 문제? 잔더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한 적도 없었기에 이런 질문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대답은 거짓말쟁이라는 오해만 키울 뿐이었다. 대체 이 캠프에는 어떤 아이들이 오길래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들 생각할까? 그 의문은 캐시 덕분에 금세 해소

됐다.

거식증, 폭식증, 우울증, 정신분열증까지 스스로와 힘겹게 싸우며 사는 십대들의 특별한 우정

대충 짐을 풀고 ‘희망의 마당’이라는 캠프파이어 장소에 모두 집합해야 하는 시간이 되자, 캐시는 켄더에게 몇몇 아이들을 소개해주었다. 폭식증에 시달리며 먹은 음식은 다시 게워내는 습관이 있다는 케이티, 자해하는 버릇이 있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이 더운 여름에도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한나, 우울증에 걸린 도리가 소개되고, 캐시 자신은 ‘편집성 우울증과 양극성 거식증’이라는 진단명을 직접 붙였다고 자랑스레 알려주었다. 다들 켄더에게 이제 문제를 밝힐 차례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켄더는 부모님이 보내서 왔을 뿐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들 코웃음만 칠 뿐이다. 이 캠프에 오는 아이들은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들처럼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쪽이고 한 쪽은 켄더처럼 문제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쪽이라는 차가운 설명도 이어졌다. 거짓말이라니? 켄더는 여기서 5주를 보내기란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했다. 목구멍에 자기 손가락을 넣고 토하거나, 갖고 온 옷이라곤 핫팬츠와 민소매 상의밖에 없는 이런 정신나간 아이들과 자기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부모님이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 알고 자신을 등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귀엽지만 사사건건 부딪히고, 정신분열증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소년과 병적으로 거짓말을 해대는 벅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은 확고해졌다. 그렇다 한들 켄더 혼자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도 없었다.

마지못해 캠프의 일정을 따라가던 켄더는 유별난 아이들이 계획한 야밤의 파티나 엄격히 금지된 짧은 외출 등 정신 없는 생활을 이어가면서 괴상하게만 보이던 친구들의 깊은 고민과 문제를 조금씩 알게 된다. 그리고 켄더 자신의 ‘문제’에도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다. 괴짜가 분명한 그로버를 향한 마음도 점점 커지고, 켄더는 처음으로 행복과 희망의 의미를 생각한다.

<저자 소개>

레베카 크레인(Rebekah Crane)은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공부하면서 YA 소설을 집필해 왔다. 미국 여섯 개 도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현재는 소설과 각본 쓰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소설 『Playing Nice』, 『Aspen』 등을 발표했다.

제목 : WRECKED

가제 : 만신창이

저자 : Maria Padian

출판사: Algonquin Young Readers

발행일: 2016년 10월 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늘 양전하던 기숙사 룸메이트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 그 날 파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술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 펼쳐진 젊은 대학생들의 주말 파티. 흥에 취한 남녀가 북적대던 어느 토요일 밤의 파티에 참석했던 신입생은 며칠 후 성폭행 혐의로 파티 주최자이자 같은 대학 남학생을 학교 측에 고발한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피해자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또 다른 신입생 헤일리,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과 절친한 친구인 리처드는 본격적인 사건 조사가 시작되자 본의 아니게 양쪽의 조연가가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 사건 역시 처음에 단순하고 명확해 보였던 진실은 그리 쉽사리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헤일리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 한 켠에 자리한 맥칼럼 칼리지에 입학한 지 5주밖에 안 된 어느 날, 세 번째 뇌진탕을 겪고 말았다. 축구가 인생의 전부인 헤일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상대 선수를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 받아 이 대학 축구팀에서도 이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한창 열띤 경기가 펼쳐지던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그만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잔디밭에 쓰러진 채로 눈을 떴을 때, 익숙한 통증이 두개골 사이로 엄습했다 싶더니 아니나다를까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이 내려졌다. 문제는 코치가 병원에 데리러 주려고 나섰다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다. 예상대로, 코치는 헤일리에게 건강이 우선이니 이제 남은 시즌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조심스레 달래듯 이야기했다. 이제 겨우 대학 팀에서 활약하나 싶었는데, 아직 시즌이 한참 남은 시점에 벤치 신세라니.... 내년 시즌은 물론, 이제 헤일리의 축구 인생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나 다름 없는 통보였다. 소식을 듣고 멀리 사는 엄마까지 매일 전화로 괴롭히는 통에 머리가 부서질 듯 아픈 헤일리는 그 절망감을 다 날려버린 놀라운 일을 뜻밖의 인물에게서 목격하게 된다. 늘 있는 듯 없는 듯 양전하고 조용하게만 살던 기숙사 룸메이트, 제니가 그 주인공이었다. 체격도 크고 목소리도 큰 왈가닥인 헤일리의 친구들이 ‘생쥐 제니’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체구도 작고, 살금살금 걸어 다니는 제니는 헤일리가 뇌진탕을 일으킨 그 날, 친구들에게 이끌려 갔던 파티장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수수께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파티 하우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격함’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는데, 제니가 파티를 갔다는 사실도 놀라운 마당에 그런 극단적인 장소에 발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헤일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두 친구가 바라보는 사건의 진실, 쌓여가는 오해와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

일요일 저녁, 평소처럼 자기 덩치만한 책가방을 매고 밤늦게 귀가한 제니는 헤일리로서 낯선 행동을 보인다. 파티가 어땠냐는 말에, 사상 최대의 실수라며 벌컥 화를 내더니 파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며 방을 나가버린 것이다. 뜻밖의 반응에 놀란 헤일리는, 얼마 후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신입생이 들어온 직후부터 예뻐장한 제니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던 조던이라는 남학생이 ‘수수께끼’ 파티 하우스에서 열린 그 날 파티에 제니를 초대했고, 제니에 말에 따르면 그 날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가녀린 체구에도 항상 책 더미를 매고 다니는 룸메이트를 보면서 헤일리는 늘 제니가 생각보다 강한 친구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적중했다. 제니는 자신이 당한 일을 창피하다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대신, 조던을 공식적으로 고발했다. 조사가 시작되고, 조던과 제니는 각각 가장 가까운 친구인 리처드와 헤일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사건 당사자를 바라보는 두 사람, 리처드와 헤일리의 시선을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이야기에 학교 내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냉정한 그 태도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근거 없는 소문과 뼈뺀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눈들, 부당한 오해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조사 과정에서 자꾸만 터져 나오고, 파티 당일 술을 마신 제니의 기억이 그리 또렷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점점 복잡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리처드와 헤일리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이 싹튼다.

갓 성인이 된 대학생들 사이에 공공연히 퍼진 난잡한 파티 문화와 엄연한 범죄 행위를 놀라울 정도로 허술하게 처리하는 대학 행정체계의 문제, 사회적인 명예와 얽힌 관계, 한 청년의 창창한 미래라는 목직한 요소들이 일으키는 영향과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시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리아 파디언(Maria Padian)은 미들버리 칼리지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문기자, 정치인 공보비서, 공영라디오의 에세이 작가 겸 편집자로 일하면서 현재까지 『Brett McCarthy: Work in Progress』, 『Jersey Tomatoes Are the Best』, 『Out of Nowhere』 등 세 편의 YA 소설을 발표했다.